

[우리들의 담수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환경부 선정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죽절초

죽절초(*Sarcandra glabra*)는 다른 식물과는 다르게 사계절 잎이 푸르고 겨울철에도 붉은 열매를 맺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아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죽절초는 키작은 나무로 약 1m 높이까지 자라고,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꽃잎과 꽃받침이 없는 특이한 형태의 꽃을 가지는 홀아비꽃대과에 속하며, 연한 황록색의 꽃이 6~7월 사이에 피고 10월부터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립니다. 또한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죽절초(竹節草)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꽃말을 가진 죽절초에 대해서 환경부는 “눈 쌓인 겨울날, 푸른 잎과 붉은 열매가 어우러져 자연이 주는 따뜻한 선물처럼 느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생육지가 제주도로 제한적이어서 서식지가 훼손되면 멸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8년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했으며, 2005년부터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생물자원관